

국내증시 약세에 CMA 등 파킹형 상품 ‘인기’

CMA 잔고, 1주 만에 7626억 늘어
MMF도 202.4兆… 전주비 6.1兆 ↑
KODEX 머니마켓액티브 ‘뭉치돈 쏠림’
증시 불확실성, 트럼프 취임까지 지속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등 초단기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등 국내 증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CMA 잔고는 86조3950억원으로 1주 만에 7626억원이 늘었다. C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받아 기업어음(CP),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상품에 투자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계좌다.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대기 자금을 묻어두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469.07)보다 2.88포인트(0.12%) 오른 2471.95,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89.55)보다 3.43포인트(0.50%) 내린 686.12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다른 파킹형 자금인 MMF도 202조 4868억원으로 전주 대비 6조1389억원 증가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예탁금 역시 지난 6일 49조8900억원에서 18일 50조9183억원으로 늘었다.

파킹형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파킹형 ETF는 CD 금리나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무위험지표금리(SOFR) 등 기초지수의 단기금리를 복리로 계산해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다. 금리는 아니지만 만기 3개월

이내의 초단기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MMF에 투자하는 상품도 파킹형 ETF로 분류된다.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단기 자금의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은 파킹 통장과 같지만, 한도액이 없고 웬만한 파킹통장의 이율보다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코스콤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ETF는 ‘KODEX 머니마켓액티브’로 5321억원 늘었다. 기존 MMF

처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뭉치돈이 몰렸다. 같은 기간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도 916억원, 902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시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투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게 되면 증시에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라는 하지만 현재는 이자 수익 확보나 일시적인 자금 운용 목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조정장이 이어지면서 분위기의 반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월20일 취임식 이후로 예상된다”며 “취임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

MAN다이나믹인컴 펀드
월배당 등 2종 단독판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하이일드펀드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월배당 펀드’와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펀드들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만(MAN) 그룹의 ‘MAN GLG dyamic Income’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2022년 출시된 MAN GLG dyamic Income 펀드는 글로벌 투자등급 및 하이일드 채권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철저한 가치평가에 기반하여 글로벌 채권을 선택하여 채권 자본차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특정 지역에 구애 받지 않지만, 최근에는 미국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유럽 채권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투자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어 정기적 소득, 안정적 수익,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해당 펀드의 성과 핵심지표인 YTW(Yield to Worst, 채권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익률)는 8.1% 수준이다. 출시 이후 71.3%(10월 31일 기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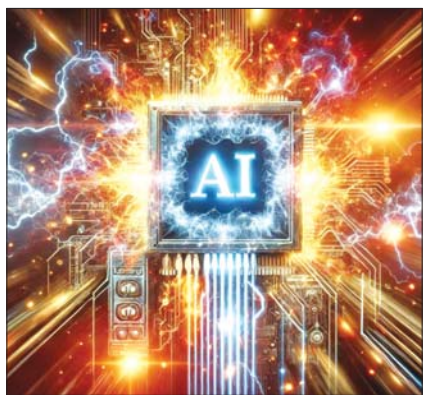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하는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월배당 펀드는 수익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월배당금을 지급한다. /허정윤 기자

AI 열풍·기업규제 완화… 전력·원자력 ETF 기대감 ‘쑥’

美 빅테크 AI 기반 성장핵심은 ‘전력’
신한·삼성증권 관련 ETF 상승세
트럼프 당선인 공약에 시장성장 전망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에너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 AI 기업 규제를 풀어주며 빅테크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기에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위기다.

19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AI전력인프라’는 상품이 출시된 올해 7월 16일 이후 35.46% 상승한 1만3275원에 이날 장을 마감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7월 9일 출시한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도 출시 이후 23.85% 상승했다. 이들 두 상품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기반 성장의 핵심에는 ‘전력’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전력을 주입받고 있는 AI 칩’ 이미지.

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ETF의 구성 종목을 AI 슈퍼사이클의 핵심 종목으로 담았다. 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GE 버노바’와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으로,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ETF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

유는 AI가 고도화하면서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의 과제가 된 셈이다. 골드만삭스는 빅테크들이 AI 개발 경쟁을 벌이면서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올해 393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1063TWh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도 AI관련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높아 전력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AI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중심의 기술 개발을 강조하며,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이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해당 정보를 통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AI 행정명령 폐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AI 투자 촉진·법인세 최고세율 15% 인하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력인프라ETF와 함께 각광 받는 ETF는 원자력 관련 ETF다.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RISE 글로벌원자력’ ETF도 올해 초 1만3030원이었는데, 이날 종가는 2만550원이 되며 57.71% 상승했다.

금투업계에서는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규모 전력이 필수인 만큼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관련 ETF들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는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PPA 시장이 형성됐지만 최근에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PPA가 체결되기 시작했다”며 “빅테크 기업들 모두 원자력을 새로운 데이터센터향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의 장기 호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학개미, ‘트럼프 수혜주’ 테슬라 추격매수

해외주식 Click

지난주 테슬라 2.9억달러 순매수
곱버스 종목에도 배팅하며 투심 갈려

‘트럼프 수혜주’인 테슬라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급등한 가운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한 발 늦은 추격매수에 나섰다. 특히 테슬라 관련 종목에 공격적인 매수 태도를 보였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12일~18일) 서학개미들이 가

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이 기간에만 2억9275만달러(4074억원)를 순매수했다.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2배 ETF도 1억1286만달러(1570억원) 사들이면서 테슬라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었던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6일 사이에 1억7166만달러(2388억원) 순매도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감이 상

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현재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34.72% 급등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주저하지 않고 추격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고공행진은 주가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이번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행보에도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가성비 모델 출시, 로보택시 등 직접적인 수익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1조달러를 설명하기에는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바이든 테마주’로 분류됐던 친환경 상장지수펀드(ETF) ‘TAN’의 경우에도 대선

직후 120달러를 넘긴 후 현재 36.04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부연이다. 테슬라 역시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비율(P/E) 거래배수(멀티플)를 보이고 있어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의 투심도 갈리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상승 흐름에 배팅하는 동시에 곱버스(역방향 2배) 종목에도 투자했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반대로 2배 추종하는 ‘티렉스 2배 인버스 테슬라 데일리 타겟’ ETF를 2570만달러(357억원) 사들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퇴직 앞둔 50대 직장인
“근로종료 때 연금개시”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가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의 재정 상태와 성향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 의향과 인식을 조사하고, 연금 수령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응답자의 85%가량이 연금개시시기를 ‘근로를 종료하는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답했다.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는 투자자연금리포트 68호 ‘퇴직연금, 언제 어떻게 받을까?’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할 시기에 퇴직자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지점은 연금수령 의향, 연금개시시기, 연금수령 방법, 연금계좌 이전 등으로 특정된다. 미래에셋증권이 조사한 연금수령자의 의사결정 지점별 응답자의 인식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수령 의향은 가입자의 재정여건, 퇴직연금 가입유무, 퇴직연금 세제 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응답자는 50.2%로, 이들의 평균 자산은 12억2000만원으로 일시금을 선택한 응답자(9.5억원)보다 약 3억원 많았다. 반면, 일시금 인출하겠다는 응답자의 부채의존도는 41%로 연금수령 의향을 밝힌 그룹(15~16%)에 비해 높았다.

연금개시시기의 결정은 응답자의 85.3%는 근로를 종료하는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